

2023 방송기술대상 수상작 소개

캄보디아 ICT · 미디어 기반 교육방송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

개발도상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프로젝트

송명근 EBS 캄보디아 ODA 프로젝트 프로젝트매니저

개발도상국에 전수한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경험

베트남 교육방송의 설립과 이어지는 개발도상국들의 요청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개국 이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공영교육 미디어입니다. 교육으로 눈부신 우리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EBS는 2014년 이래로 대한민국처럼 경제 발전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베트남 교육부(MOET,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정보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베트남 국영방송(VTV, Vietnam Television)과 협업을 통해 베트남 최초·유일의 교육 전문 채널 VTV7을 설립 완료하고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까지 VTV7과 함께 수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 중등교육 강화 프로젝트도 추진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는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고, 이 중 적극적인 국가들은 EBS에 직접 연락하여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국가에도 EBS와 같은 교육방송 설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여러 국가 중 하나로 베트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캄보디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자 희망하였으며, 2016년부터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PTC,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1. 베트남 교육방송 VTV7 개국식



그림 2. VTV7에서 제작·방영한 베트남판 ‘선생님이 달라졌어요’(EBS 포맷)



그림 3. EBS 수학 콘텐츠(EBS Math) 기반 베트남 중학 콘텐츠 제작 현장

EBS, 개발도상국 그리고 높은 현실의 벽

교육방송 설립에 필요한 자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정체된 프로젝트

그러나, EBS는 이렇게 적극적인 캄보디아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EBS의 재정적 한계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도움 요청에 쉽게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에 의거 약 3% 수준으로 배분받고 있는 수신료 70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공공재원은 국내에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자체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책무를 수행하는 EBS의 재정 상황에서 큰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교육방송 구축 프로젝트는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에도 동일한 한계점에 봉착하였지만, 교육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현지 기업의 재정적 지원과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내부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이전에도 EBS를 방문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수많은 국가가 동일한 문제, 즉 재정적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했었던 아쉬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육방송을 만들고 잘 운영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략과 기술, 노하우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EBS와 그러한 교육방송이 절실한 개발도상국을 이어줄 수 있는 재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 EBS는 해외의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동시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캄보디아와 현지의 콘텐츠 제작 인력연수를 위한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여, 당시로서는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캄보디아 교육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림 4.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 EBS 사장 접견



그림 5. 캄보디아 현지 인력 연수(프놈펜)



그림 6. 캄보디아 교육 연수생 단체 사진

ICT, 미디어 및 교육 분야에서도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심과 지원으로 추진된 프로젝트

캄보디아와의 제한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준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관부서와 협의도 진행하고,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본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도 현황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EBS는 이러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 지원에 부응하고, 실제로 본 프로젝트가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될 경우 실질적인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업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of Public and Management)과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 EBS와 같은 교육방송을 설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DA 프로젝트로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개년 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중국, 일본의 하드웨어와 인프라 중심의 일회성인 ODA 지원과 차별화하여 수원국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변화를 유도하며,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정의하여 지속성을 갖춘 C4D(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기반의 ODA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인 대한민국 ODA 프로젝트를 이끌고자 항상 고민을 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심과 지원으로 EBS는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캄보디아에 전달해 줄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7. 캄보디아 교실 학습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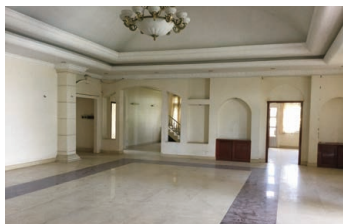


그림 8. 캄보디아 교육방송 프로젝트 추진지 건물



그림 9.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공사 현장

사실, 우리의 EBS 역시 1970년대 초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미국 수출입은행(EXIM,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의 자금을 통해 방송 기자재 및 송신시설을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 및 교사·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했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ICT, 미디어 및 교육 분야에서도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는 뜻깊은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1970년대 EBS 제작 현장



캄보디아 ICT 및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방송의 설계

2020년(프로젝트 1차 연도), 교육방송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프로젝트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DA 예산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캄보디아에서의 교육방송 설립 프로젝트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EBS와 캄보디아는 2016년부터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의 교육방송 구축 방향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 프로젝트의 컨셉을 정교화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전 사례인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지상파 방송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국가였으며 특히 프로젝트의 파트너인 베트남 텔레비전(VTV)은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디어였기에 우리의 EBS와 같이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송을 설립하였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경우 주어진 미디어 환경이 달라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업방송 외에 공적 성격의 콘텐츠가 유통되기 쉽지 않은 방송환경,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게 콘텐츠 소비가 방송보다 모바일로 빠르게 넘어가는 ICT 환경 등을 고려할 때, EBS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MPTC는 방송에만 국한하지 않고, 방송과 모바일 기반의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방송을 구축하기로 방향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방송에서 기획·제작·운영하는 교육 콘텐츠를 캄보디아의 취학 전부터 K-12(대한민국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되, 캄보디아 인적자원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학생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연수 콘텐츠, 캄보디아 공무원의 기본 업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무원연수 콘텐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포함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프로젝트 1차 연도인 2020년에는 교육방송 구축을 위한 영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BS와 대한민국의 외부 전문가 그룹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MPTC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교육, 방송 및 통신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캄보디아 교육방송(이하 EBC, Educational Broadcasting Cambodia)의 운영전략을 도출하였으며, 긴밀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양 국가의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 측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EBS가 참여하고, 캄보디아 측에서는 우정통신부 MPTC를 중심으로 교육청소년스포츠부(MoEYS,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정보부(MoI, Ministry of Information), 그리고 EBC가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정교함과 실행 가능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그림 11. EBC 구축을 위한 EBS-MPTC-EBC 업무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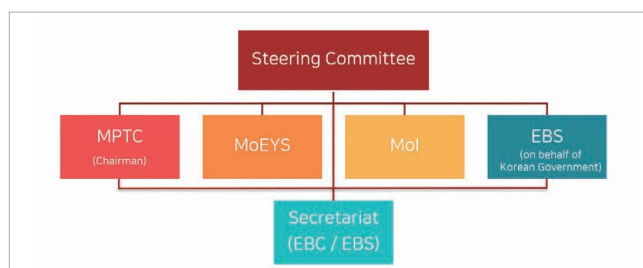


그림 12. EBC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캄보디아 운영위원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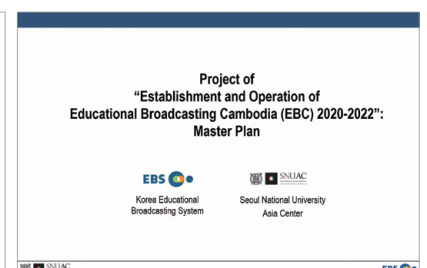


그림 13. EBC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표지

진정한 ODA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린 캄보디아 EBC의 첫걸음

2021년(프로젝트 2차 연도), 세부 실행계획 기반 세부 영역별 프로젝트 본격 실행

2020년 준비된 세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2차 연도인 2021년에는 EBC 구축을 위한 세부 영역별 프로젝트 과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교육방송을 설립하기 위해서 단지 방송 설비를 구축해주는 것만으로는 캄보디아가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자신들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 ODA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지원 프로젝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막 지원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좋은 시설과 장비로 그 지원 성과를 홍보하지만, 지원이 완료된 이후 수원국에서 잘 사용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과 달리 좁은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ODA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국가의 관점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원국의 진정한 필요와 그들의 방향성이 프로젝트에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BS가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으로 고려하고 있던 부분은 단순한 방송장비 지원 프로젝트가 아닌, 캄보디아 국민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교육방송 구축을 위한 세부 영역은 아래와 같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 영역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컨설팅	캄보디아 최적화된 교육방송 구축 및 지속 운영 컨설팅
인력연수	교육 콘텐츠의 자체적인 기획, 제작,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연수
콘텐츠 제작	교육 콘텐츠의 자체적인 제작 및 해외 우수 교육 콘텐츠 현지화 제작
제작 시스템	교육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기존 건물 활용)
온라인플랫폼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구축
파일럿	플랫폼 활용도 증대를 위한 시범교실 구축 운영(디바이스 지원)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2020년도 계획에 근거하여 교육방송 구축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및 노하우 전수가 캄보디아 현지 및 온라인으로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시점은 아직 COVID-19가 창궐하던 시절로 인해 현지와 온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인력연수를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2회를 포함하여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EBC에서 근무하며 교육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할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교육 과정에 특화된 학교교육 콘텐츠와 평생교육 콘텐츠 총 78편을 제작하였습니다. 78편은 교육방송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적은 분량이지만, 이전까지 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인력들이 짧은 시간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다는 측면에서 다음 연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캄보디아 MPTC가 제공한 건물에 이러닝 스튜디오 2개소와 NLE 편집시스템 3기를 구축하여 자체적인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기획과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의 계획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한 2021년은 가시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크지 않은 부분이었으나, 2022년 이후의 발전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 더 큰 발전을 꿈꾸게 만든 시기였습니다.



그림 14. EBC 학교교육 콘텐츠 타이틀



그림 15. EBC 학교교육 콘텐츠



그림 16. EBC 평생교육 콘텐츠 타이틀



그림 17. EBC 평생교육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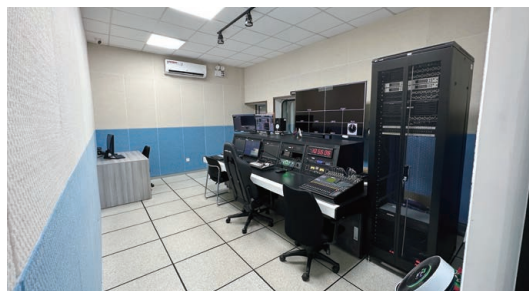


그림 18. 2021년도 구축 EBC 부조정실



그림 19. 2021년도 구축 EBC 스튜디오

캄보디아 교육의 새로운 시작, EBC 성공적 구축 완료

2022년(프로젝트 3차 연도), 교육방송 구축 완료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2022년은 캄보디아 교육방송 EBC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해로 성공적인 구축 완료 및 2022년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캄보디아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한 해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는 콘텐츠 제작, 제작시스템, 플랫폼 등의 분야별 상시 컨설팅도 수시로 진행하면서, 2022년도에는 구축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EBC의 운영 방식, 거버넌스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지난 2021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4,700여 편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콘텐츠 3,157편, 평생교육 콘텐츠 1,279편, 교사연수 콘텐츠 180편, 공무원연수 콘텐츠 93편을 제작하여 교육방송 운영 초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에는 콘텐츠의 시작과 종료 부분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는 지원 고지를 포함하였으며, EBC의 개국을 기념하는 다국어리도 준비하여 방영하였습니다.



그림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고지 화면



그림 21. EBC 공무원교육 콘텐츠



그림 22. EBC 개국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시스템 영역에서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제공한 3층 건물의 Ground 층부터 2층까지 3개 층(대한민국 기준 1~3층)에 제작 스튜디오 5기, 편집실 5기, 더빙실, 분장/의상실, 서버실 등의 제작지원실 및 학생 대상의 파일럿 교실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제작시스템을 바탕으로 EBC는 교육 콘텐츠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Ground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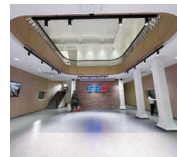
📍 Ground층 (스튜디오, 실내 무대 및 제작지원실)



스튜디오 부조정실



스튜디오 내부



실내 무대(로비)



제작지원실



📍 1층

📍 1층 (스튜디오, 편집실, 더빙실, 서버/UPS실, 의상/분장실 및 제작지원실)



스튜디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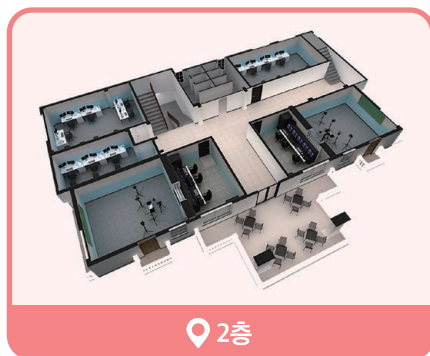
더빙실



의상/분장실



서버/UPS실



📍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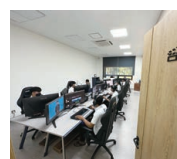
📍 2층 (스튜디오, 편집실, 파일럿교실)



스튜디오 부조정실



스튜디오 내부



편집실



파일럿교실

제작된 콘텐츠를 운영할 플랫폼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로 구성되어 백 앤드 시스템(Back-end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실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런트 엔드 서비스(Front-end Service)를 함께 구축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탑재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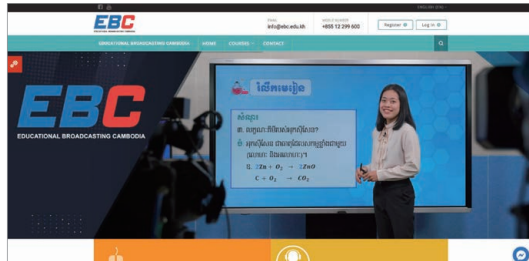


그림 23. 콘텐츠 관리시스템(Back-end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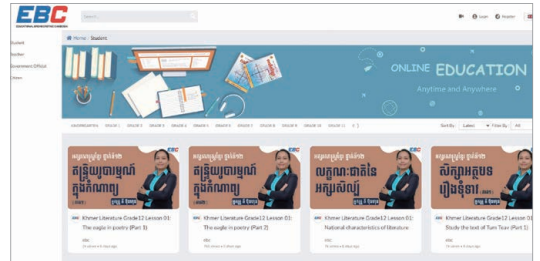


그림 24. 콘텐츠 운영 서비스(Front-end Service)

교육방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할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의 2차의 오프라인 연수 이후, 2022년에도 2회의 오프라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실무 연수를 추진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COVID-19 상황의 완화로 대한민국 초청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25. EBS 프로그램 제작 현장 방문

EBC 직원을 대상으로 EBS 내부 제작시설을 활용하여 현장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EBC 직원 외에도 캄보디아 MPTC, MoEYS에서 EBC와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방송의 역할,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및 향후 ICT·미디어의 변화 방향에 대한 특강을 추진하여 실무적인 역량 강화 및 정책적 지원의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림 26. EBS 제작 실습



그림 27. 방송강의 기획 실습



그림 28. EBC 파일럿 스쿨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한 교육방송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학교(파일럿 교실)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온라인·모바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캄보디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플랫폼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파일럿 교실 6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지 중·고등학교에 2개 교실, EBC 내 4개 교실을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법을 쉽게 배우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림 29. EBC 파일럿 스쿨 교육 현장

EBC, 'Education First, Students Always'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캄보디아 MPTC와 EBC의 노력

2022년 12월, 캄보디아 교육방송 EBC는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개국식을 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DA 프로젝트로 추진된 '캄보디아 ICT·미디어 기반 교육방송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캄보디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ODA 프로젝트는 지원하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반의 성공도 거두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원된 자원을 마중물 삼아 수원국의 노력이 함께해야 제대로 된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캄보디아 MPTC와 EBC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축과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MPTC는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EBS의 역할에 관해 연구하여, 베트남에서의 EBS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EBS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재정적 이슈로 당장 교육방송의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캄보디아 내 제작 인력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DA 예산을 통해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후에도 MPTC는 EBC 구축을 위해 별도의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시설 이외의 공간에 대해 전면적인 개보수를 통해 EBC의 행정을 위한 공간을 자체 재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EBC에서 근무하는 제작 인력 및 교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여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범학교에서 구축한 파일럿 교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통신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스포츠부 MoEYS, 정보부 MoI와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협업 방식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MPTC의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EBC 역시 시범학교 내에서의 학생, 교사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며, EBC 내 미취학 어린이, 학교 밖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Saturday Class를 운영하여 사회적인 가치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노력은 EBC의 모토인 'Educations First, Students Always'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0. EBC 외경



그림 31. EBC 제작진



그림 32. EBC Saturday Class

EBS의 과거, EBC의 현재, 그리고 EBS와 EBC의 미래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우정, 교류, 발전의 상징을 희망하며

2022년 12월 14일은 캄보디아 교육방송 EBC의 개국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국 행사에는 EBC의 설립에 큰 역할을 담당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MPTC, EBS,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인 캄보디아 교육방송 EBC의 전 구성원이 모여 개국을 축하했습니다.

개국 행사에서 젊고, 역동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EBC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캄보디아 교육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과거 사진 속 사료로만 볼 수 있었던 젊은 EBS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금의 EBC 구성원들이 오늘을 기억하며 캄보디아의 발전에 스스로가 큰 기여를 했다고 돌아볼 수 있는 미래가 가까이에 있기를 바라며, 그때까지도 대한민국의 EBS와 캄보디아의 EBC가 양국의 우정과 교류, 발전의 상징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BC의 설립에 큰 역할을 담당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MPTC, 그리고 주인공인 캄보디아 교육방송 EBC에 이 글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그림 33. 과기정통부-MPTC-EBS-EBC 기념촬영



그림 34. EBC 개국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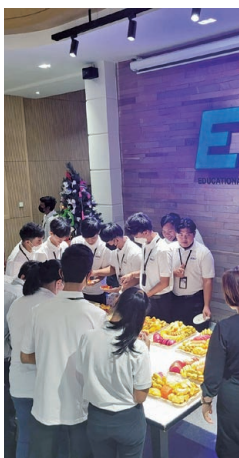


그림 35. EBC 구성원